

장 영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분석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오 정 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분석

장 영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오 정 순

인 준 서

오정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영아반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상황에서의 교사들의 반응에 따라 영아의 정서가 완화되어 가는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영아반 교사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 3)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4)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조절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질적 연구로서 이미 레포가 형성된 영아반 경험이 있는 10명의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2010년 2월 27일에 걸쳐 약 5개월가량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뤄졌으며 모든 면담은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구해서 녹음되어졌다. 자료 분석은 녹음자료와 현장기록노트를 유목화하고 분류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에게 조언

을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교사들은 영아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교사들로 하여금 ‘원래 그런 아이’, ‘낙인찍힌 아이’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한계를 느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의 빈도와 질이 달라진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했다. 또한 영아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움으로 어린 연령 일수록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표출되기도 하고 학급당 영아수에 따라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것을 교사들의 담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셋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반복되어지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하나 교사들은 영아의 감정이 차분해 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후에 영아의 정서를 조절해 줌으로써 영아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긍정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아의 정서발달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이해에 대한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생각했다. 또한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주기 위해 각 영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이해하

고 반응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부모들에게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조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므로 초임교사보다는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영아반 교사를 맡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문제 | 3 |
| 3. 연구자 배경 | 4 |
| II. 이론적 배경 | 7 |
| 1. 정서 및 정서조절의 개념 | 7 |
| 1) 정서의 개념 | 7 |
| 2) 정서조절의 개념 | 9 |
| 2. 영아의 정서발달 | 11 |
| 1) 영아 정서발달의 특징 | 11 |
|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 13 |
| 3. 선행연구 | 16 |
| III. 연구방법 | 19 |
| 1. 연구 참여자 | 19 |
| 1) 연구 참여자 선정 | 19 |
| 2) 연구 참여자 배경 | 20 |
| 2. 연구절차 | 24 |
| 1) 예비연구 | 24 |
| 2) 본연구 | 24 |
| 3) 자료수집과 분석 | 26 |

| | |
|--|----|
| IV. 결과 및 해석 | 28 |
|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28 |
|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기표현 방식이에요 | 28 |
|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교사로 하여금 색안경을 끼게 해요 | 30 |
| 3)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교사를 어렵게 해요 | 32 |
|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34 |
|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나타나요 | 34 |
|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부모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아요 | 36 |
| 3) 학급당 영아 수에 따라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달라져요 | 40 |
| 3.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 43 |
| 1)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응해야 해요 | 43 |
| 2) 반복되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무시반응도 필요해요 | 46 |
| 3)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할 때 교사의 수용적인 태도는 정말 필요해 요 | 47 |
| 4.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조절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 50 |
| 1) 교사교육을 통해 영아의 발달이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 51 |
| 2) 부모교육을 통해 영아의 발달이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 53 |
| 3)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 54 |
| 4)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경력이 있는 교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 해 줄 수 있어요 | 57 |
| V. 논의 및 결론 | 59 |
| 1. 요약 및 논의 | 59 |

| | |
|--|----|
|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59 |
|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60 |
| 3)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 63 |
| 4)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조절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 64 |
| 2. 결론 및 제언 | 66 |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아주 어린시기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정서인 기쁨과 즐거움, 흥분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동시에 부정적 정서인 슬픔과 분노, 화,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적 경험과 표현은 개인의 복잡한 행동들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곽승주, 2008).

정서란 내적·외적 자극에 대한 사람의 기분, 느낌, 감정 등의 반응과 상태를 뜻하며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얼굴표정 · 신체적 표현 · 언어 등과 같은 ‘표현적 요소’와 자율신경계의 흥분과 같은 ‘생리적 요소’이다. 정서는 신생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영아는 표현적 요소인 얼굴표정, 신체적 표현, 울음, 언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Camras et al., 1992: 곽노의, 김경철, 김유미, 박대근 재인용, 2007). 즉 영아는 울음, 미소, 발성 등의 정서표현을 통해 양육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아-양육자간의 반응을 통해 영아는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아는 영아 - 양육자간의 반응에서 정서조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서조절은 정서 상태를 긴장속에서 편안한 상태로 조정하는 전략으로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수준으로 높아진 감정 상태를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이나 대처하는 과정, 혹은 자기조절이라는 큰 맥락에서 내적 상태와 외현적 행동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Kopp, 1992).

Thompson(1994)에 의하면 정서조절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서적 반응을 모니터하고 수정시켜 나가는 내적인 과정과 외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된다.

1세가 되면 영아는 자아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독립적인 존재로 행동하게 되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기 시작하며 걸음마기로 접어들면서 자율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기주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표출을 자주하게 된다.

부정적 정서표현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나게 되는데(Izard,1991) 긍정적인 정서가 유아에게 평안과 안정된 느낌을 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게 쉽게 수용되어지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유아에게 언짢은 느낌을 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타인에 의해 거부되어지기 쉽다(김희정, 1994).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 보육시설에 오는 영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영아는 보육시설에서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이나 또래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교사와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영아의 경우 아직 의사소통 능력의 미숙으로 인해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거나 조절하는 것 보다 교사의 반응 정도나 개입 전략을 통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므로(마혜진, 2005) 영아의 정서조절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영아의 다양한 정서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는 영아의 기질이나 생활습관을 고려해 반응해주는 것에 비해 보육시설에서 교사는 영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교사 대 영아비율로 인해 영아의 정서표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명희(2000)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영아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는 수용적 반응을 보이지만 영아가 화나 공격, 떼쓰기 등의 부정적 정서

를 표현할 경우 교사들은 명령하기, 지시하기, 무시하기 등의 비수용적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영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에는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표현에는 비수용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아는 매우 어린 나이에 부정적 정서표현이 긍정적 정서표현보다 더 호의적이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Belle, 1989; Sarason & Pierce, 1978) 그러나 인간은 정서표현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변화, 종결시키며,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을 조직화하고 동기화 시킨다(Campos, Mumme, Kermonian & Campos, 1994). 이와 함께 교사의 반응에 따른 영아의 정서조절은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곽승주, 2008)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현장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그에 따른 교사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요소들은 무엇인지, 또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표출했을 때 교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표현 조절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출했을 때 교사들의 반응과 정서조절에 따라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면담 내용을 통해 영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영아반을 처음 담당하게 되는 교사들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정서조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 3)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4)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조절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3. 연구 동기

영아에 대한 관심은 졸업 후 6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유치반을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교사생활을 하게 된 어린이집의 1층은 영아반 아이들이 2층은 유아·유치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2층 교사들의 눈에 비친 1층 영아의 모습은 언제나 사랑스러웠고 1층 영아가 눈인사라도 해주면 교사들은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영아들에게 스킨십을 해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영아반 교사들은 ‘그렇게 예쁘면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 하면서 영아들로 인한 힘든 마음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지만 영아의 귀여움과 애교는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영아반 교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영아들과 함께 생활해 보는 것을 항상 기대했다. 그리고 7년차 때 내게도 영아반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영아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했다.

영아반 아이들과 만난 첫째 날은 신입생 영아들과 재원생 영아의 울음소리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영아반에 대한 첫 경험은 시작되었다. 3월, 4월은 영아의 적응기간이기 때문에 ‘영아의 울음은 당연하다.’ 라

고 생각했었는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나타나는 울음과 떼쓰기, 칭얼거리기, 공격적인 행동 등의 부정적 정서 표현으로 매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적응이 끝난 후에도 영아의 계속되어지는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때로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아반 경력이 많은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영아에 관련된 서적과 부모교육에 관련된 서적을 통해 영아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영아가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까? 라는 의문은 항상 나에게 남아 있었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관심은 까다로운 기질의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확대되었다. 둘째 아이가 보여주는 부정적 정서표현은 어느 선까지 수용해줘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주고 정서조절 해줘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다.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교사였지만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였다. 또한 경력이 많아지면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후배들과 가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다. 동료들과 이야기 할 때도 영아의 울고, 떼쓰고, 칭얼거리고, 무는 행동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화제가 되었지만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조절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교사들과의 담론을 통해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인식과 반응 그리고 조절방법에 대한 자료가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영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 교사들의 영아에 대한 이해로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감추고 억제하기 보다

는 정서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서 및 정서조절의 개념

1) 정서의 개념

Lazarus(1976)는 정서란 주관적인 감정, 적응행동과 공개된 생리적 변화, 도구적이고 표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충동적 행동의 특성을 포함하는 심리 상태라고 하였다(김연진, 2005, 재인용). 김영탁(2000)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 유쾌, 불안,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느낌은 유기체의 욕구 충족의 과정에 있어서, 유기체가 가지는 기대나 욕구에 의해 긴장 상태가 나타나게 되며, 이 긴장의 해소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정서라고 했다. 또한 정서는 생물학적 반응으로서 개인이 직면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를 준비시키는 에너지 동원 반응으로 보기도 하였으며(정봉교, 현성용, 윤병수, 2003), 이명은(2004)은 일반적으로 정서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감정과 사고로 복합된 주관적 경험이 포함되고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여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태도나 안면운동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정서에 대한 견해는 정서의 변화를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느냐에 따라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원적으로 살펴볼 때, 정서는 라틴어 e + movere 로부터 파생되었다. 이것은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바뀌는 것을 말한다(김경희, 1995). 몇몇 학자들이 제시한 정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James(1980)는 자극적인 사건을 지각한 후에 수반되는 신체적 변화와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감

정의 변화로 보았다. Plutchik(2002)은 정서란 자극에 따라 파괴 대 보호, 결합 대 거부, 재생산 대 재통합, 탐색 대 지향, 또는 이들 일부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구조화된 신체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Tomkins(1980)는 ‘근육반응’ 곧 얼굴표정으로 English & English(1961)는 내적 반응과 외현적 반응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몸짓, 자세, 언어 등과 같은 정서적 의사소통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서 개념은 화남, 두려움, 슬픔, 행복고가 같은 정서에 관한 단어로써 명명되며, 그 개념들은 행복과 놀람같이 독립적인 것, 행복과 슬픔같이 상반된 것, 행복과 기쁨같이 거의 대치가 가능한 것 등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남묘순, 2003)

정서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감정이다. 사전에서 의미를 서로 비교해보면 정서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에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 또는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주위의 분위기나 기분이며, 감정은 어떠한 대상이나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쾌감, 불쾌감 따위의 마음의 현상(이기문,1995)으로 정의된다. 또한 임창재(1998)는 감정이 내·외적 자극이나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쾌·불쾌의 미분화된 흥분 상태라면 정서는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이 감정이 보다 분화된 상태로서 정서적으로 자극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적 변화와 동기화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감정은 욕구, 심상, 사고 등과 관련되어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주관적인 의식 상태이며, 정서는 그 의식이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여 객관적으로 관찰되어지는 정의적 상태이며 정서는 기쁨,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이 표정, 태도 행위,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정의된다(신용일 1997)고 할 수 있다.

2) 정서조절의 개념

전통적으로 정의되던 정서는 다분히 개인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되었다(Campos,& Barrett, 1989)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게 되면서 정서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즉 정서의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표출의 의미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서로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임희수, 박성연, 재인용, 2001). 최근의 기능주의적 관점은 이전의 입장에서 정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서를 어떻게 측정하고 기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Thompson(1991)은 정서조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서조절이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서적 반응 특히 강력하고 일시적인 정서적 특성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변화시키는 외적인 과정과 내적인 과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서조절은 경험한 정서의 강도를 낮추거나 높이고, 표현 혹은 회복시기를 늦추거나 촉진 시키고, 지속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정서 반응의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송혜선, 재인용, 2005).

Morris, Silk과 동료들(2007)은 정서조절이란 내현적, 외현적 처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작하기, 지속하기, 사건 조절하기, 강도, 정서 표현을 수반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정서조절은 내현적 ·외현적 처리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서 인지 및 주의 전환하기, 생리학적 반응 조정하기와 같은 정서 조절에 관한 내현적 처리과정 뿐만 아니라 부모나 타인, 또는 정서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외현적 영향들을 포함한다(여은진, 재인용, 2009).

Thompson(1991)는 정서 조절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첫째, 정서 조절은 정서적 각성을 억제하고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혹은 강화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정서 조절은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하는 과정인 동시에 다양한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과정이다. 셋째, 정서조절은 경험한 정서의 강도를 억제 혹은 강화하고, 정서의 시작과 회복을 느리게 혹은 빠르게 하고, 지속성을 제한 혹은 강화하고, 정서의 범위와 불안정성을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넷째, 정서 조절 자체가 목표가 되는 기능적인 과정이다. 한편, 사람들은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절을 하는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정서 조절을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서 조절은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행동도 포함하는 것이다(Gross, Richard, & John, 2006)

Calkins(1994)는 정서조절이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전략으로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하였다.

Kopp(1989)는 정서조절이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고양된 수준을 다루는 과정으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정서 조절을 긍정적인 정서이든, 부정적인 정서이든 지나칠 경우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에 반해 Westen(1994)는 유쾌한 정서를 극대화하고 불쾌한 정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들로 정의하였다. 즉, 정서조절을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이지영, 2006, 재인용).

문용린(1996)은 정서조절은 자아 속에서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자아 속에서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은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은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타

인의 정서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과 자신에 대한 타인이 갖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 방식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Gross(1998)는 정서조절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사람들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키고자 노력한다. 둘째, 상이한 정서경험에 따라 정서조절 행동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자기조절의 측면을 강조한다. 넷째, 전형적인 정서조절 행동은 의식적이다. 다섯째, 정서조절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선형적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윤석빈, 2000: 박성희, 재인용, 2003).

이러한 개념과 정의를 종합해보면, 정서조절이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정서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 속에서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아의 정서발달

1) 영아 정서발달의 특징

사람의 정서는 대부분 어린시기에 발달이 되어 1세 말경에 이르면 성인이 가진 정서의 대부분이 형성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수치심이나 자부심 같은 자신을 인식하는 정서가 생기게 되며 점차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면서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기질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더욱 분명해져서 성장하는 동안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성연, 이정희, 천희

영, 심미경, 황혜정, 나종혜, 2005).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주 양육자 및 영아의 주위 인적 환경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신뢰감의 형성은 영아가 성장하는 동안 전반적인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조복희, 2006).

영아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하는데 매우 적응적인 가치를 지닌다. 정서 이해 능력은 대인 관계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영아기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8개월에서 10개월이 되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Feinman, 1992 : 박유미, 재인용, 2008).

영아는 생후 1년이 지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이 급격히 발달하고, 2-3세에 이르러 객체적 - 주체적 자기 인식이 발달함에 따라 정서 조절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Kopp, 1989). 즉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 소유물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정서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서를 더욱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부정 정서를 성공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정적 정서의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인이 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익숙하지 않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영아는 마치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는 듯이 주 양육자를 바라보는데,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참조라고 한다. 2세경이 되면 사회적 참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이 자신의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사회적 참조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일반적이 되어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추론이 더욱 정확해진다. 점차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이 발달하게 되면서 감정이입능력도 생기게 된다(김희진, 김언아, 홍희난, 2004).

김유미(2005)는 정서발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영유아의 정서는 지속기간이 매우 짧다(문용린, 1992). 이는 신기한 장난감을 좋아하다가도 금방 정서상태가 바뀌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정서 상태는 급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영유아의 주의집중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유아의 정서 상태는 폭발적이고 격정적이다. 영유아는 어른들이 보기에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대단히 격렬한 정서표현을 한다. 그런가하면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즐거워서 깡충깡충 뛰다. 그래서 조금만 즐거워도 눈물을 흘리고, 조금만 화가 나도 격한 울음을 터뜨린다.

셋째, 영유아의 정서는 단순하고 그들은 주로 싫다, 좋다 또는 쾌-불쾌 수준의 단순한 정서를 가진다. 대인관계에서도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 정도고 아직까지는 외로움, 고독, 그리움, 질투, 애증, 존경 등의 분화된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영유아기 정서는 표면적이고 직접적이다. 정서와 정서 표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서를 추정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갈수록 정서와 그 표현행동이 심층적이고 간접적이 되어 겉에서 추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신생아의 정서적 특징은 미분화된 흥분상태이며, 지속시간이 짧고 빈도가 잦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영아가 인지발달이 미숙하고 정서를 억제하지 않고 표현하여 긴장을 해소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신생아

기는 쾌정서 보다 불쾌의 정서가 먼저 분화되어 간다. 이 불쾌의 정서반응은 약 3개월이 되기 조금 전부터 분명해지다가 3개월경에는 웃음을 웃는 등 쾌 정서까지 나타나며 불쾌와 쾌의 정서가 분화된다. 5~6개월경에는 불쾌에서 공포-혐오, 분노로 분화되며, 18개월경에는 질투도 가능해지게 된다. 5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아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친숙한 것과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매력이 있으나 차이가 많은 것은 공포를 야기 시킨다. 초기 애착의 다른 면은 격리불안 인데 이는 영아가 부모와 일정기간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불안한 상태를 말한다. 공포감은 큰소리가 나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데 이 때 신생아는 질겁을하거나 가쁜 호흡을 하며 손을 꼭 움켜쥐고 입술이 파래진다. 분노는 충족이 안 되거나 신체운동에 억제를 당하였을 때 나타나며 특히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격분하고 울음으로 이어지게 된다(임창재, 1997).

영아기의 슬픔의 정서는 영아가 3개월경에 처음으로 나타내는데 원인은 부모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김경희, 2004). 즉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양육자가 무표정과 회피, 단조로운 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녹화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조건과는 대조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정과 몸짓을 보였다(Cohn&Tronick, 1983). 또한 양육자의 슬픈 표정은 영아의 슬프고 화내는 표정을 증가시키고 탐색과 놀이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Termin& Izard, 1988).

영아의 분노 표출은 6개월 이후 더욱 빈번해지고 2세에 이르러 분노 정서는 가장 흔히 일어나며 영아기 동안 내내 증가한다(Berk,2002; Lewis & Michalson, 1983). 또한 이동능력의 증가로 기기 시작하면서 분노표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영아의 자율성 및 독립심 발달과 관련이 있다. 즉 의존적이던 영아가 걸음마기가 되면 신체적 통제력이 생기면서 왕성하게 독립성을 보인다. 독립성에 대한 욕구는 과제의 위험성이나 신체적으

로 불가능함에 대한 판단보다는 다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내적욕구이므로 때로는 좌절을 일으키고 위험한 경우들이 있으며 (Watson, Watson & Wilson, 1999) 이러한 영아의 발달적 변화와 도전으로 욕구가 좌절될 때 나타나는 분노 정서의 출현 또한 보다 자주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싫어’ ‘안 돼’ 등의 언어와 함께 밀치고, 때리는 등의 공격적 행동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며, 성인의 요구에 저항하는 짜증과 같은 표현이 극에 달하기도 한다(Snow, 1998).

이외 영아기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기본적인 부정적 정서로서 두려움에 관한 정서발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낮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양육자와의 불리불안의 연구를 통해 밝혀왔다.

두려움은 공포, 전율, 불안, 초조, 염려 등과 관련된 요소로 위험하고 위협적인 자극이 있거나 그것을 예방할 때 생기는 정서다. 사람들은 불안, 공포 등을 경험할 때 걱정, 불편함, 안정성 및 통제력의 불확실함 등을 느끼며 두려움을 유발한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싸우는 등의 대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언어 표현 등에 빠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이훈구, 한종철, 정한섭, 오경자, 한광희, 황상민, 김민식, 2003). 영유아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직면한 위험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은 현재의 위협과 앞으로 다가올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체 및 심리적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같은 정서를 느낌으로서 위협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Lazarus, 1991).

영아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Demos, 1986). 불쾌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인간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아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수정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심지어 영아도 불편한 상태를 완화하는 기제들(예를 들어, 울음과 같은)

을 갖추게 된다(Kessen & Mandler, 1961). 불쾌감의 성공적인 조절은 또한 성취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Brazelton & Yogman, 1986).

Strayer(1986)에 따르면 그 동안 우리는 슬픔, 분노,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대인간 정서적 특징에 주목하여, 이것을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만 적용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상황적 요소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효과까지도 자세히 고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영아는 원하는 목표가 좌절되거나 성취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여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3. 선행연구

영아의 부정적 정서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정윤희(2002)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반응,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사회적 유능성,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신혜정, 2000),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을 살펴본 연구(강희연, 1997),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이지선, 정옥분, 2002)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양옥승, 나은숙(2004)이 연구한 1,2,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화를 내는 원인과 조절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화 정서의 원인은 1세의 경우 자료다툼, 신체적 욕구불만, 또래의 공격에서 많이 나타났고 2세의 경우 자료다툼, 공격, 놀이거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희정(2008)의 만 2세아의 성과 기질 대상에 따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분석에서 영아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좌절과 갈등을 느꼈을 때 떼쓰거나 울고 화내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지선(2009)의 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빈번한 갈등이 생기며 신체공격 및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등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조절전략에 초점을 준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는데 분노 상황에서 남녀 영아 모두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특징적인 정서조절전략은 주의전환이었으며, 공포정서의 정서전략은 회피전략으로 나타났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또한 1, 2, 3세 연령별로 분노 조절전략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1세와 2세의 경우 울음, 짜증, 화내기 등을 통한 정서조절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양옥승 외, 2004). 이외에 18-24개월 영아에게 좌절과제를 설정하고 조절전략을 자기위로, 모-향하기, 주의 돌리기, 공격성, 건설적 대처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송혜선, 2004)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는 공격성, 모-향하기 전략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영아는 대체로 긍정적인 정서조절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양육자 역할의 중요성은 (곽금주 외, 2005)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 중 참조구하기는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전략이었으며, 짜증내기, 문제해결행동 전략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양연숙(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안정 애착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상호작용의 질이 낮고 타인양육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불안회피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보다 긍정적인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개방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크며 반대로 질적 수준이 낮은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영아가 과장된 정서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양육자의 상호작용 질이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나은숙, 황혜경(2004)의 1,2,3세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절한 반응을 못할 경우 오히려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유아가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교사의 수용적 또는 비수용적 반응에 대해 살펴본 연구(김명희, 2000)에서는 교사들이 영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수용적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비수용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아는 매우 어린 나이에 부정적 정서표현이 긍정적 정서표현보다 더 호의적이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적응적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선영(2006)에서도 교사 - 유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 때 유아들의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고, 교사 - 유아의 상호작용이 통제적일 때 순종행동이 낮고 활동적이며 충동적이고 공격, 반항 등의 부정적인 사회 정서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ig(1989)는 만 1,2세 영아는 각 발달 영역에서 아직 미성숙하며 개인차가 심하며 영아가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영아 각자 개성을 인정하고 영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교사반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위에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의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 있어서 양육자인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교사 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대상 교사들 10명중 7명은 현재 영아반(만1세~만2세)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교사들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질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신뢰할만한 레포가 형성되었을 때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울러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김영천, 2006) 연구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했던 교사들과 대학 선후배들로 이미 연구자와 레포가 형성된 교사들을 선정했다. 또한 Spradley(1979)가 언급한 좋은 연구자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자이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화를 분석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영아의 발달정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요인, 교사의 교수능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의 학력(보육교사교육원, 2년제 유아교육과, 4년제 유아교육과, 4년제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관련 대학원 졸업 등), 경력(5년부터 12년까지의 경력), 물리적 근무환경(15인 이상의 가정보육시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대학부설 어린이집 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의 교

사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배경

(1) 교사

① 박 교사

박 교사는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방통대를 졸업하였으며 경기도 소재의 유치원에서 3년 동안 담임으로 근무하였다. 어린이집에서는 경기도 소재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영아반 담임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영아반 담임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유치반을 담당하고 있는 8년차 교사이다. 박 교사는 온정적인 태도와 함께 집단생활의 생활규범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영아가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② 정 교사

정 교사는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하고 서울시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년, 민간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결혼 후 경기도 소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3년 째 운영하다가 올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12년차 교사이다.

정 교사는 피아노를 전공하여 피아노 외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어 전이시간에 영아가 다양한 악기연주와 음률활동을 경험하므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교사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가 되자고 항상 이야기 한다.

③ 김 교사

김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 소재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 근무하였고 현재는 직장어린이집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9년차 교사이며, 이 기간 중 5년은 영아반 주임교사로 근무한 베테랑 교사이다. 현재는 임신과 출산으로 육아휴직중이지만 김 교사는 영아가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여 기관과 가정에서 영아들에 대한 양육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④ 양 교사

양 교사는 4년제 영유아보육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소재의 대학 부속어린이집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영아반 주임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영아반 경력은 2년차이다. 이 교사는 유치반 경력 동안 유아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적 측면과 지원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던 인상 깊은 후배 중 한명이다. 양 교사는 작년에 영아반을 처음 맡아 영아의 적응 과정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부모들과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영아가 행복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⑤ 장 교사

장 교사는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기도 소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만1세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7년차 교사이다. 우리 반 아이의 학부모이기도 한 장교사는 따뜻한 마음과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며 영아들에게 엄마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이 제일중요하고 만1세반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되도록 가정과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영아반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에 대해 나에게 자문을 요청하기도 하며 학부모이기 전에 동료 교사로서 함께 의논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도 한다.

⑥ 허 교사

허 교사는 4년제 영유아보육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 소재의 대학 부속어린이집에서 8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반 5년과 영아반 3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하다. 허 교사는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후배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 모델링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교사가 민감해야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영아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베테랑 교사이다.

⑦ 노 교사

노 교사는 대학 동기로 4년제 영유아보육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 소재의 대학부속 어린이집에서 9년 동안 근무하였고 현재는 같은 어린이집에 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 교사는 영아반 5년 경력이 있는 베테랑 교사이고 영아의 발달에 대한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현재 2살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영아를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영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노 교사는 교사 시절 영아반의 계획안을 영아의 입장에서 영아의 눈높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의 주제로 영아가 오감으로 할 수 있는 통합적인 활동을 계획하여 많은 동료 교사들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⑧ 최 교사

최 교사는 4년제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소재의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반2년 영아반 3년차 교사이다. 큰 키와 출중한 외모를 소유한 최 교사는 특히 유아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영아반을 담당하면서 유아들과 다른 영아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껴 힘들어하기도 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위해 영아의 작은 몸짓에도 귀 기울이고 반응해 주는 등 영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⑨ 이 교사

이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소재의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반 3년 영아반 3년차 교사이다. 이 교사는 처음 영아반을 담당했을 때 영아들을 많이 안아줘서 팔이 두꺼워 졌다는 에피소드가 생길 만큼 영아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등 영아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 줌으로써 영아들의 어린이집 적응 기간도 짧았고 영아들도 이 교사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많이 의지했었다. 이 교사는 영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영아반 베테랑 교사의 조언을 구하기도하고 서적들과 온라인 자료를 자주 접했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영아반 교사들과 나누기도 했다.

⑩ 홍 교사

이 교사는 4년제 보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현재는 서울시 소재의 직장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8년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홍 교사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영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영아들과 신체놀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교사이다. 예상치 못했던 일로 하루하루가 긴장되는 영아반이기는 하지만 영아반 교사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교사이다.

2. 연구 절차

1) 예비연구

예비연구를 위해 현재 영아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과 2009년 9월 12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다른 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아의 정서조절을 돕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예비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교사들의 의견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본 연구를 확장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2010년 2월 27일에 걸쳐 약 5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집단 면담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은 면담자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피면담자와 면담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인 주제에 대하여 피면담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를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질문이나 주제들 그리고 대화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내용들은 의미 있는 자료들로 이용되었다(김영천, 2006). 연구자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자의 역할을 하며 교사들의 이야기에 반응해주고 이야기가 중단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 면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했다.

(1) 핵심주제면담

본 연구는 집단면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 핵심주제면담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핵심주제 면담은 소집단을 구성하여 특정 연구주제에 대하여 그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김영천, 2006)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집단면담에서 소집단면담은 같은 경험을 갖은 친분이 있는 교사들이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면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3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소집단면담의 참여자는 교사들의 스케줄에 따라 매 면담마다 다르게 구성되었고 소집단면담의 소요시간은 각 집단면담마다 다르며 각 그룹 당 16시간~ 20시간 정도 소요되어졌다. 면담 장소로는 교사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할 것을 감안해 함께 근무했던 어린이집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집단별 처음 면담 때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보다는 교사들의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상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이 진행될수록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교사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노력하였다.

(2) 개별 면담

본 연구에서는 집단면담을 주요 면담 방법으로 하면서 보조적인 방법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단면담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이나 집단면담 후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질문하는 면담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Lincoln & Guba, 1994) 개별 면담과 전

화면담을 통해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물어보거나 집단면담에서 미흡한 내용들을 보충했다.

3)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집단 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은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구해서 녹음되어졌다. 처음에 참여자들이 녹음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녹음기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또한 모든 면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메모를 하고 관찰자의 의견을 남기는 현장기록을 했다.

자료 분석은 관심이 가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빠진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수집된 자료를 조직화하고, 분류화하고, 범주화하고, 패턴을 찾아 관련을 맺고 종합화하는 것이다(김운옥, 1996). 또한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함께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의 관점이 흐려지고 미결된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Tayler & Bogdan, 1984).

이에 본 연구자는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면담 당일과 다음날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현장기록노트를 완성하였으며 참여자의 대화의 특징을 찾아서 참여대상자와 면담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또한 전사된 현장기록노트를 여러 번 읽고 정리함으로써 교사들의 공통된 부분을 유목화하거나 분류하였고 분류과정에 있어서 모호한 자료들은 집단 면담에 참여했던 교사에게 다시 물어서 자료를 완성했다. 또한 면담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현장기록노트에 메모를 남겨서 다음 면담 시 언급하여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질적 연구의 내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결과들의 검토가 필요하므로(김

윤옥, 1996) 구성원 검토로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에게 연구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을 얻었다.

V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레포가 형성된 교사들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심층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영아들 개인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표현이라는 인식과 함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교사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인식과 색 안경을 끼고 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기표현 방식이에요.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영아가 자신의 존재를 교사에게 알리는 신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가 울거나 떼 부리는 건 교사에게 “선생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친구들 하고 갈등이 일어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놀이나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

을 때 선생님한테 도와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직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울거나 눈빛을 보내거나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겠죠.

(2009년10월31일 집단면담 양교사)

우리는 성인이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 아이들은 언어가 안 되기도 하고 조절하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그걸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기분 나쁜 것에 대해 불쾌한 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은 정상이야. 누가 나를 때리고 화나게 하면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던지 자기도 가서 한 대 때리던지...그게 맞는 현상이라고,,,

(2009년 12월 11일 집단면담 정교사)

교사들은 울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아들도 울고 나와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울면서 말하면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울지 않고 말해야 선생님이 네가 왜 우는지 알고 도와줄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보다 스스로 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09년 11월 28일 집단면담 최교사)

특히 신학기에는 영아 아주 많이 울어요. 신입생 재원생 할 것 없이 14명이 다 울어요. 환경도 다르고 양육자도 다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만 많이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학기 초에 적응할 때 우는 울음이나 부정적 정서 표현은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도 사용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표현해야 선생님이 한 번 더 봐주고 안아 주게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영아들을 이해 해주고 교사가 더 보듬어주고 교사와 애착이 될 때 까지는 기다려 주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사와 애착이 형성이 되면 울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교사도 애착이 형성 되는 기간 동안 영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알게 됨으로 인해 영아의 정서표현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해줄 수 있잖아요.

(2009년 11월 28일 집단면담 김교사)

위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영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성인에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영아의 발달과정에 있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영아가 부정적 정서 표출에 대한 조절방법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영아가 울음으로 표현할 때 울지 말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지만 교사들은 영아가 울어야 그들의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영아반에서는 학기 초에 적응기간 동안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표출되는데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해 주고 반응해 주기보다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해해주고 애착형성이 될 때까지 영아들을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생각은 Gazda(1999)의 정서이해하기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교사로 하여금 색안경을 끼게 해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교사들은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해 줌으로써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해결되고 감소되어지도록 노력하지만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계속 반복이 되면 교사들은 색안경을 끼고 영아들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영아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면 ‘어머~~ 누구야. 그래그래’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서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인식도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안 좋아’ ‘그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009년 12월 11일 집단면담 정교사)

어린이집에서 낙인찍힌 아이들이 있잖아. ‘재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안 쓰러운 거야.

.(2009년 10월 31일 집단면담 노교사)

영아들 중에도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해서 낙인이 찍힌 영아가 있어요. ‘애는 원래 그런 아이야.’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해도 교사들은 더 강하게 반응하거나 무시하거나 단호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영아들도 교사들의 그런 반응들이 강화가 되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거나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2009년 12월 18일 집단면담 허교사)

계속 반복되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타임아웃을 하는데 타임아웃을 할 때에는 왜 여기에 앉아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영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줘야 되고... 그런데 교사가 적절하게 반응해주지 못하면 영아는 교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눈을 피해서 또 다른 부정적인 정서를 찾아서 표출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영아는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를 마음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영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감정을 표현했을 때에는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또 때렸니? 왜 그랬어?’ 라고 반응을 하면 영아들로 하여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2010년 1월 6일 집단면담 노교사)

위의 면담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영아에게 교사들은 색안경을 쓰고 보거나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잦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영아에 대해서 교사들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원인을 찾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해 주기보다는 ‘원래 그런 아이’로 낙인을 찍어놓고 무

시하는 방법이나 타임아웃을 통해 영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방법은 영아로 하여금 또 다른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영아는 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억제하며 더 강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게 되기 때문에 영아의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없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반복적으로 보일 때 부정적 정서표현의 원인을 찾아보고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아를 이해해주며 영아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조절되어지도록 도와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영아를 대상으로 타임아웃을 해야 할 경우 왜 여기에 앉아있어야 하는지 영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하며 오랫동안 앉아있음으로 인해 영아가 왜 앉아있는지 모르거나 또 다른 부정적인 정서가 표출되지 않도록 조절해줘야 한다는 교사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3)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교사를 어렵게 해요.

교실에서 일어나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때론 교사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는 어린이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가정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면서 교사한테만 정서조절을 해주라고 하니깐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성을 쏟다가도 그만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2009년 10월 31일 집단면담 양교사)

우리 반 한 아이가 너무 심하게 부정적 정서를 표현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 될까 생각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봐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으로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교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해요.

(2009년 11월 28일 집단면담 최교사)

어린 영아지만 교사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어. 이야기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 모르는 척 자기 마음대로 하면 ... 화를 낼 수 도 없고 혼내 줄 수 도 없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

(2009년 12월 11일 집단면담 정교사)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반복되는 부정적 정서표현은 가정과 연계해서 원인을 찾거나 가정과 일관성 있게 반응해줌으로써 긍정적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조절방법을 찾기 보다는 교사의 몫으로 돌리거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수용 해주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가 반복적으로 표출될 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라고 생각될 때 교사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아반을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말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수업에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건 영아의 정서표현에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직 말을 못하니까 영아의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 하나에 신경 쓰이게 되고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았으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즉 감정이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게 된 원인이나 상황을 포착하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정말 어려웠어요.

(2009년 12월 11일 집단면담 박교사)

위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의 발달이나 영아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영아의 정서표현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지 못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교사들은 영아의 작은 소리 작은 몸짓에도 더욱 민감하게 귀 기울이지만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의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나타나는 상황을 포착하지 못했을 때 교사들은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욕구 불만이거나 놀잇감 다툼, 신체 및 언어적 공격, 놀이거부, 행동 저지는 영아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게 한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나타나요.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교사가 ‘네가 계속 울면서 소리 지르면 선생님은 네가 왜 우는 지 알 수 없고 너를 도와줄 수 없고 ...’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했지만 그게 안 통했었는데 말이 트이니까,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런 부정적인 표현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수용되어지는 것 같아.

(2009년 12월 11일 집단면담 정교사)

우리 반 00는 생일이 12월이라 많이 느려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생일이 빨라요. 그래서 애가 표현이 안 되니까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계속 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친구 물면 안 된다고 혼냈어요. ‘친구 양 물면 친구가 아파’ ‘친구가 아야 해서 잉잉 울어’ 그런데 무는 게 나쁜 행동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말이 되니까 언어가 되니까 이 무는 행동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물으라고 해도 안 물어요.

(2009년 12월 18일 집단면담 허교사)

우리 반에 만 2세인데... 엄마가 아이를 너무 예뻐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살짝만 부딪혀도 뒤로 누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아이가 있어요.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교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정적인 정서가 쉽게 조절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 말이 조금 트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정적 정서가 줄어드는 거예요. 화나면 울기 전에, 뒤로 눕기 전에 일단 말로 하기도 하고 막 울 때 교사가 자기 마음을 읽어주면 금방 그치기도 하고....

(2010년 1월 23일 집단면담 양교사)

위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교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사들이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 해주거나 마음을 읽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정적 정서가 풀릴 때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했으나 언어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즉 의사소통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의 생각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입이 생기므로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교사들의 긍정적인 언어로 조절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아가 의사소통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다른 영아들에게 피

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해서만 교사가 미리 개입해줌으로써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영아의 부정적 정서조절의 빈도와 질이 결정이 된다고 언급했으며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부정적 정서표현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것들이 부정적 정서나 태도로 나타나는데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는 그 부정적 정서를 조절해 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

(2010년 1월 23일 집단면담 노교사)

한 아이는 신체적으로 정말 활동적인 아이인데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주는 거야. 주 양육자가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거야.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바빠서 충족을 못시켜주고... 그런데 부정적 정서를 표현 했을 때 부모가 반응해준니까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계속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아이는 긍정적인 정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칭찬해주고 반응해주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2010년 1월 13일 집단면담 정교사)

우리 반 00는 병으로 인해 약하고 아파서 부모님은 00를 혼내거나 00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야. 그냥 마냥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하는 바램뿐이지 00의 그런 행동(무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지.

(2010년 12월 11일 집단면담 장교사)

영아는 부모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어 하고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들 중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모르거나 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영아의 어떠한 반응에도 다 수용적인 반응을 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 교사들은 이야기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주기도하고 영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표현에 적절하게 반응해 줄 필요가 있다고 교사들은 의견 제시를 했다.

오늘 우리반 00가 등원 할 때 어린이집에 안 들어온다고 많이 울었어요. 어머님께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하시고 어제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아무리 달래 보아도 그치지 않아서 제가 안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조금 진정이 된 후에 '00야! 왜 잉~잉~ 울었어? 했더니 '엄마 껌 없어' 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00가 매일 아침 등원할 때 슈퍼에 들러서 사탕이나 껌을 먹고 오거나 손에 카라멜을 들고 와요. 그런데 오늘은 00입에도 그리고 손에도 없었어요. 아마 엄마가 슈퍼에 가지 않았거나 원하는 걸 사주지 않아서 떼를 쓴 거지요. 그런데 엄마는 왜 00가 어린이집에 올 때 우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2010년 1월6일 집단면담 홍교사)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부모님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 때문인 것 같아. 00이 엄마는 00이가 울면 처음에는 '왜 울어 우리 새끼~' '누가 누가 그랬어~' 하다가 00이가 계속 울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지만 엄마가 바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후자의 방법을 사용해. 00이 엄마는 아이랑 이야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울거나 떼 부리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 보다는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해서 00이 또한 자

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 못하는 것 같아.

(2010년 1월 13일 집단면담 정교사)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고 귀여워하니깐 아이들 월령에 맞게 키워야하는데 너무 애기처럼 다 해주고하는 것 같아요. 개월 수에 맞게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엄마들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혼자 해보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 울거나 떼를 부리는 등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09년 11월 28일 집단면담 최교사)

위의 면담에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부모님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아가 같은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도 같아야하는데 부모님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영아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야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므로 부모님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가 영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교사들은 생각했다. 또한 영아의 발달 시기에 맞게 영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영아 스스로 혼자 했다는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할래요.’ ‘혼자 할 수 있어요.’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똑같이 표출한다고 생각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딸이 며칠 전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짜증나’ 라고 얘기 했대요. 나도 반성했던 게 내가 집에서 신랑한테 ‘ 짜증나 이렇게 하지마’ 라고 자주 말하는데 우리 딸이 그 의미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짜증나’ 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 앞에

서 그런 얘기 안 하려구요. 말조심 해야겠어요.

(2010년 1월 23일 집단면담 허교사)

위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아는 모방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에 영아에게 긍정적인 모델링을 제시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영아는 부모님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한 부정적인 언행이나 정서조절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똑같이 표출하므로 부모들은 부정적 정서표현이나 조절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영아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가 속해있는 가정환경도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적응 기간 때 할머니랑 떨어질 때 울면서 스스로 ‘나는 안 울어. 똑 똑 안 울어’ 하는 거예요. ‘할머니 간식 먹고 오실꺼야. ’ 라고 이야기 해주고 안아줘도 ‘ 아니야! 00는 안 울어 ‘라고 표현을 해요. ’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 ’ 아니야~~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자기감정을 억제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스스로 자해를 한 대요. 자기 손 등을 물고 때로는 손가락을 깨무는데 피가 날 정도로 깨운대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손등도 깨물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집에서 너무 예쁨만 받고 자란 거예요.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우리 00는 똑똑해. 너무 야무져서 다 잘하고~~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아마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혼자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2010년 2월 22일 집단면담 홍교사)

우리 반에 00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생일이 빨라 그리고 말도 잘해... 그런데 친구가 놀잇감을 빼앗아가도 반응을 안 해. 그리고 부정적 정서표현도 거의 안 해. 그리고 그냥 소리 내서 웃어. 자기 의사표현이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안하니까 친구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 친구들한테 당하는 것 같아. 이 친구의 문제도 가정에 있

는 것 같아.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고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기도 하고 싸우면 외할머니 집에 가기도하고... 그래서 아이가 항상 불안해 해. 어쩌면 아이가 엄마아빠가 다투고 나면 따로 지내기 때문에 자기 감정 특히 부정적 정서표현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아파.

(2010년 1월 9일 집단면담 김교사)

위의 면담에서 적응 기간이라 양육자와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안 운다며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스스로 조절하려는 영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영아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애써 웃음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교사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또한 영아가 속해있는 환경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 나타나므로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영아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말했다.

3) 학급당 영아 수에 따라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달라져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소로 교사들은 학급당 영아 수에 대해 말하면서 학급당 영아의 수가 낮을수록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나타나는 빈도가 낮아지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정서가 조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영아 반 때 매일 물었어요. 물렸어요. 매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어린이집

에 가보니까 무는 애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학기 초에만 물었던 게 아니고 학기 끝날 때 까지 물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물어. 선생님이 무는 애가 없대.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있는 곳은 선생님 1명에 아이들이 5명이잖아 그래서 아이들끼리 갈등이 생길일이 별로 없는 거야.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다섯 명이니까 선생님 시야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민감하게 반응해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표현도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고..

(2010년 2월 6일 집단면담 김교사)

우리 반은 지금 교사4에 영아14명인데. 12명일 때랑 14명일 때랑 교실에서 나는 울음소리부터가 달라요. 빼앗고 울고 때리고 물고 그런 행동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반은 일단 아이들도 많고 교실이 커서 아이들이 분산되면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아반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을 1대 1로 해야 하지만 14명을 1대 1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구요. 영아가 많은 만큼 교사가 많아도 아이들의 갈등이나 다툼은 금방 일어나니까 교사 2명은 상호작용해주고 나머지 교사 2명은 서서있으면서 아이들의 갈등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막 달려가요. 교실이 넓으니까... 놀잇감은 굉장히 많은데...

(2009년 10월 31일 집단면담 양교사)

그런데 교사들이 4명씩 담당한다고 그래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아이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4명이 다 내 아이들이고 다 한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5명을 보는 거랑 14명을 보는 거랑 정말 다름이 것 같아요. 상황 상황 순간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고...

(2009년 11월 28일 집단면담 이교사)

위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여러 명의 교사가 함께 교실을 운영하는 것 보다 교사 한명이 독립적으로 교실을 운영할 때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빈도가 낮아진다고 보았다. 교사들은 만1세반의 학급당 영아 수가 5명일 때 영아가 교사의 시야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교사가 영아의 부정

적 정서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고 영아들끼리의 놀잇감 다툼이나 갈등 또한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대로 교실이 넓어서 학급당 영아 수가 많은 경우 교사 1명이 감당해야하는 5명의 영아에 비해 그 반에 있는 모든 영아들을 교사의 시야에 넣어야 함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순간순간 놓쳐버리거나 반응해 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영아의 수가 많은 만큼 영아들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교실이 넓은 만큼 영아의 활동범위가 넓어짐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좀 더 작으면 부정적 정서표현도 줄고 교사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 같아.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엄마처럼 아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집에서 보다 어린이집에서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표현되는 것 같아. 엄마만큼 아이들에게 민감하지 못 하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있다 보니 그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 없잖아.

(2010년 1월 14일 집단면담정교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어야 영아의 이야기를 수용해줌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감하게 반응해주기 어렵다는 거지요. 영아 반 1대 5도 너무 힘들어. 1대 3이 맞아. 이론적으로 하려면 1대 3이 맞아. 다른 영아와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다른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면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없어.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낸다니까요.

(2010년 1월 9일 집단면담 최교사)

위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좀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 대 영아 비율이 낮을 경우 교사가 다른 영아와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다른 영아의 정서표현을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므로 인해 오는 부정적

정서표현을 줄일 수 있고,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해 줌으로써 영아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표출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교사들과의 담론을 통해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와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영아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아 - 교사의 상호작용 및 반응이 영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의사소통 감정이입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응해야 해요.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면서 다른 영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응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용적인 반응인 의사소통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표현이 조절될 수 있도록 돕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비수용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아가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아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다른 영아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했을 때 교사가 단호하게 반응해 주지 않으면 영아가 생각하기에 ‘아~~ 또 해도 되는구나.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된다고 무섭게 혼내주기도 해요.

(2009년 11월 28일 집단면담 이교사)

우리 반에 친구들도 물고 형님들도 무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00야! 친구 물지 마. 친구 물면 친구가 아야해.’ 라고 얘기하고 무는 행동을 막기 위해 다른 친구들 보다 그 친구를 주의해서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는 행동이 더 많아지고 상처도 깊게 나고 해서 하루는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어, 울어도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 00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선생님한테 와. 라고 얘기 했더니 계속 울었어. 그래도 그냥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어. 한참을 울었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친구를 물면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이야기 해주면서 00의 손등을 살짝 깨물어 주었어, 그랬더니 아프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00가 친구 물면 친구도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 해줬어. 그리고 나서는 물 상황이 되면 교사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교사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 물지 않더라구.

(2009년 12월 11일 집단면담 장교사)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교사들은 영아를 이해하고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영아반 경험을 통해서 그것만이 올바른 정서조절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24개월이 지나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대. 그거에 대해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 전에는 영아는 무조건 받아주고 안아주고 알았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구.

(2010년 2월 10일 개별면담 노교사)

내가 전에 근무하던 원에서는 만1세반이 매일 물고 물리고 ... 무는 행동이 많이 나타났어. 그 때 영아반 선생님들 반응은 상황을 이야기 해주면서 ‘ 친구물면 안되지. 그러면 친구가 아프지. 친구 물면 친구가 기분이 어떨까? 속상하잖아.’ ‘다음부터는 친구 물지 말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감싸줬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부정적 정서표현을 했을 때 교사가 단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강화가 돼서 무는 행동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물었던 것 같아.

(2010년 2월 22일 집단면담 정교사)

아이들 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반응해 주는 게... 물론 정석은 알고 있지만 다 맞지는 않고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되고...

(2009년 12월 18일 집단면담 허교사)

위의 면담에서와 같이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영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용되어지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영아가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어질 때 특히 다른 또래들에게 신체적 공격 등으로 상처를 남겼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반응해 줌으로써 영아가 가치기준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한다고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영아들한테 단호하게 한다고 뽉~~이눔~~~라는 단어를 쓰는 건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

(2010년 2월 6일 집단면담 이교사)

그래... 물론 그러한 제스처나 언어가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언어를 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2010년 2월 6일 집단면담 김교사)

교사들은 때론 영아에게 부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이나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교사들은 영아의 정서조절 과정에 있어서 다른 교사나 그 외의 사람이 보기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방법으로 좀 더 부드럽게 언어순화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반복되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무시반응도 필요해요.

교사들은 영아의 반복되어지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영아의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줄어들 때 개입해 줌으로써 영아가 스스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반응해주고 있는 것을 아래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저는 아이들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면 ‘왜 그러니? 00 때문에 속상했구나.’ 하면서 아이를 위로해주거나 속상함을 인정해주는 편인 데 만약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에는 받아주기 보다는 무시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 다른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속상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부정적 정서표현 하는 것이 조금 소거가 되는 것 같아요,

(2010년 1월 23일 집단면담 양교사)

영아가 떼를 부릴 때는 무시 하기도해. 어떤 아이들은 울기 시작하면 귀를 막고 울어. 옆에서 교사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던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화가 풀릴 때까지 무조건 우는 아이들이 있어. 그럴 때는 ‘ 계속 울기만 하면 선생님이 널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시를 해. 그러면 한참 울다가 조금 풀려서 교사한테 오면 그 때 이야기를 하지. 이런 반응이 반복이 되다 보면 영아는 계속 울면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되고 울음의 길이가 짧아지지. 안 그러면 교사가 우는

아이 달래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2010년 1월 9일 집단면담 김교사)

무시하는 반응이 모든 영아들에게 다 통하지는 않아요. 정서적으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에게엔 무시하는 반응은 더 큰 부정적 정서표현을 표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교사의 관심이 필요해서 울음으로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사가 그 마음마저 몰라주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2009년 10월 31일 집단면담 양교사)

위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의 무조건적인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아가 아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조절 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정적인 정서를 울음으로 표출한다든지 반복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할 때 교사들은 무시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아의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려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교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아에게 무시하는 반응은 더 큰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게 하기도 하고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었는지 교사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반응해 줘야 한다고 교사들은 생각했다.

3)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할 때 교사의 수용적인 태도는 정말 필요해요.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영아의 정서표현을 수용해 줌으로써 정서가 긍정적으로 조절되어 짐으로 교사의 수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언어로 의사표현되기 전까지는 많이 기다려 줘야 되고 부정적 정서로 표현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줘야 할 것 같아.

(2009년 10월 31일 집단면담 노교사)

우리가 배울 때는 영아시기에는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서 일관적인 태도로 나가라고 배웠는데... 정석이 원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아들을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줘야 할 것 같아.

(2009년 11월 28일 집단면담 김교사)

0세 영아의 경우 대부분 울음으로 표현하는데 울음에 따라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불편한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일단 안아주고 적절하게 반응해주면 대부분 울음을 그치면서 정서가 조절 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월령이 어릴수록 다 받아주고 허용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2010년 2월 19일 개별면담 양교사)

즉 어린 영아들 일수록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아의 행동이나 몸짓에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원인을 찾아 해결해주고 영아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영아가 언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관적인 태도로 반응해줘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옆 반에 화가 나면 상을 엮는 아이가 있어. 너무 자주 상을 엮어서 담임 선생님은 '원래 그런 애야' 라고 이미 낙인을 찍은 거지. 그날도 화가 나서 책상을 엮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냥 다 엮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정말로 다 엮은 거야. 교실이 엉망이 됐어. 그런데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구.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 했어. 다 엮으니깐 어때? 이렇게 다 엮을 정도로 속상했어? 그랬더니 개를 꼬덕 거리더라구. 그리고 나서 애를 꼭 안았어. 그리고 물어봤어, 다 엮고 나니까 속상한 게 조금 풀렸니? ..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자' 했어. 그랬더니 정리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야~~ 00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정리도 너무 잘한다.' 막 칭찬을 해줬어, 그랬더니 잠깐의 일이었는데 아이가 표정도 바뀌고 나한테 와서 안기는

거야... 알아보니깐 부모님이 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애정이 결핍되었던 거야. 관심을 받고 싶은데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해서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야.

(2010년 1월 6일 집단면담 노교사)

교사들은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 다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정서를 표현했는지를 교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 중에서 애정결핍이나 관심결핍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일단 품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등의 수용적인 반응으로 아이들의 감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절해줘야 하고 그 후에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조절방법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정서는 아이들의 기질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울거나 꿈쩍도 안하고 웃에다가 오줌똥 다 싸는 애가 있었어... 그런데 애가 가장 크게 울 때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야.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된걸 알기 때문에 더 크게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아이라서 '친구가 이렇게 해서 oo이가 속상했어? 라고하면서 애가 속상한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안아주었어. 그러면서 ' 그런데 친구를 때리면 안 돼. 다음에는 속상할 때 친구 때리지 않고 말로 이야기 하거나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해. 알았지? ' 그랬더니 금방 풀리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 그래서 애한테는 화를 내는 것 보다. 성숙하니까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아는 거지.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는 애를 품어주고 속상한 거를 들어주고 그리고 교사 눈을 보는 애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하는 게 맞겠구나..

(2010년 2월 22일 집단면담정교사)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놀잇감 빼앗겨도 울지도 않고 금방 포기하고 새로운 놀잇감을 찾아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옷깃만 스쳐도 잉~잉~ 울어서 많이 반응해주는데 순한 기질의 영아는 말 그대로 너무 순해서 손이 잘 안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안아주고 눈 마주쳐 주고 그랬어요.

(2010년 1월 23일 집단면담 양교사)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영아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교사들의 반응 또한 영아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해 줘야한다고 이야기 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영아의 기질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를 크게 표출하는 영아가 있는 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영아들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영아의 기질이나 성향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하며 이에 따라 정서조절 방법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위의 면담에서 OO는 다루기 힘든 영아였지만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교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교사의 의도를 알고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더 빨리 감소되고 영아 스스로도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법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까다로운 영아는 순한 기질의 영아나 그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교사의 독점적인 정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 교사의 도움이나 손길이 더 많이 간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했다. 반면에 순한 기질의 영아는 긍정적 표현이든 부정적 표현이든 반응을 많이 하지 않아서 때로는 교사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반응을 덜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세심한 배려와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조절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영아는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배우게 되므로 영아주변의 환

경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 양육자인 부모와 대리 양육자인 교사들의 반응은 영아의 사회발달, 정서발달, 언어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아의 긍정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이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사교육과 부모교육, 교사들의 민감성, 경력 교사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생각했다.

1) 교사교육을 통해 영아의 발달이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면담을 통해 교사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생활지도를 회상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하나의 과목으로 듣기 보다는 유아교육관련 과목을 들으면서 조금씩 다뤄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짧은 생활지도 과정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수박 겉핥기라서 초임이 되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자녀교육과 문제행동에 관련된 것 등 많이 읽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09년 12월 18일 집단면담 양교사)

교사들은 발달이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영아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영아의 마음을 읽고 교사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동료교사와 함께 이야기 하면서 조언도 들어보고 정서조절 방법에 대해 함께 풀어나 가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

(2009년 12월 18일 집단면담 허교사)

보수교육에서 영아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때 영아의 생활지도나 부정적 정서표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모두들 알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2010년 2월 22일 집단면담 박교사)

위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반을 담당하면서 관련도서를 통해 영아에 대한 이해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교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 등을 알게 되거나 영아반 경력을 가진 선후배와 동료의 조언을 통해 정서를 조절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영아를 이해하고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티칭일 경우 교사들 간의 교육태도 반응태도가 일치해야 될 것 같아. 교사들이 같은 색을 내지 못하면 영아가 힘들 것 같아. 선생님들 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영아들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교사에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 것 같아.

(2010년 1월 14일 집단면담 정교사)

한 학기 정도 듣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수업하는 것을 직접보거나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교사들이 영아들에 대해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 2월 27일 개별면담 홍교사)

영아반의 경우 혼자 반을 운영하는 경우보다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반을 운영하는 팀티칭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 즉, 아빠, 엄마의 양육태도가 같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듯 영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두 명 교사의 반응도 일치되어야 한다고 교사들은 말했다. 두 교사가 영아가 보인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해 줌으로써 영아가 혼란을 겪거나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또 다른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는 등 영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좋은 모델링 즉 다른 교사들이 영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사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 대한 주제로 정보도 공유하며 연구하면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 부모교육을 통해 영아의 발달이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교사들은 영아의 발달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에게 영아의 정서 이해에 관련된 부모교육이나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을 다음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엄마들도 아이를 처음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아들 또한 화가 나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은 때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결국 엄마가 모르니까 아이들에게도 적절하게 반응해줄 수 없는 거지.

(2010년 1월 14일 집단면담 장교사)

그래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영유아의 정서를 위한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를 해서 엄마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나 정서교육에 대한 강의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모두들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실천으로 옮길 수 없잖아....

(2010년 2월 6일 집단면담 김교사)

영아가지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서 저는 1년 동안은 기본생활습관을 통해서 영아가 되고 안 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부모님들에게도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야기했어요.

(2010년 1월 9일 집단면담 최교사)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들은 영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영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어떤 방법으로 반응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해서 영아들에게 적절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그로인해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교사들을 이야기했다. 또한 부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보다는 영아의 인지적인 부분에 관련된 강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정작 영아에게 필요한 정서교육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며 교사들은 안타까워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너무 지나친 사랑으로 영아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영아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기 때문에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나므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영아에게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응해 주거나 긍정적으로 정서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3)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요.

영아의 정서조절 발달은 민감한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확립되기 시작한다(Tronick, 1989).는 연구와 같이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의 몸짓이나 움직임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한다는 것을 다음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 반 교사는 특히 영아들에게 더 민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교사가 민감하지 않으면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왜 그런지 모르고 문제가 되는 행동도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영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 10월 31일 집단면담 홍교사)

영아는 부정적 정서를 표출했을 때 교사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서가 조절이 되는데...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해주지 못해서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2009년 10월 31일 집단면담 노교사)

위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아반 교사는 특히 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민감하지 않아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지나거나 원인을 알 수 없어 영아를 도울 수 없게 된다면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반복되기도 하고 더 과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출했을 때 영아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조절되기도 하지만 교사가 민감하지 못해 무심코 지나칠 경우 영아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출하기 한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영아는 그들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교사에게 도와달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교사는 영아의 몸짓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내 눈에는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 아이가 힘들어 하는 거 다 보이는데 선생님은 안 보이거나 봐요. 전혀 관심도 없고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09년 12월 18일 집단면담 허교사)

어떤 교사들은 영아의 발달 상태에 따라 영아들을 관찰하고 돕는데 어떤 교사들은 전혀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으로만 영아들을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아반 아이들이 울면 뭔가 불편한 것이 있거나什么的의 원인이 있을 텐데... 그 때 그 때만 잠깐 반응해주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 정서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던지 받아들이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아이의 반응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안됐어..

(2009년 12월 11일 집단면담 장교사)

평소에 정말 잘 놀던 아이인데 며칠 전부터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임 임 울기도하고 계속 서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요즘 가정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서 가정애와 연계해서 정서조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2010년 1월 23일 집단면담 홍교사)

위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영아를 이해하며 영아를 도와야 된다고 교사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거나 민감하지 않은 교사들은 반복되어지는 부정적 정서표현의 그 이면에 영아가 그렇게 표출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 보다는 그 상황만 보고 영아의 감정을 조절해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교사의 반응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으로 조절되기 보다는 더 심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영아들에 대해서 교사가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 가정애와 연계해서 원인을 찾아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동료 교사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4)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경력이 있는 교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어요.

교사들은 영아반 교사는 초임 교사보다는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그리고 미혼보다는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래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영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영아는 아직 어리니까 영아는 많이 받아주고 해야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 되는 때가 아주 많잖아요. 그런게 조금경험이 많은 선생님이야 잘 풀어갈 수 있지만 영아반을 처음 하는 선생님들은 이론과 현장이 너무 많이 다 른것 같아..

(2009년 10월 31일 집단면담 노교사)

영아반은 초임교사보다는 경력이 있는 교사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도 아이들을 처음 키우는 입장이라 잘 몰라요.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해 줘야할 지 모르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도해 줘야하는지 엄마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초임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 해야되고 엄마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할지 어려울 것 같아요.

(2009년 12월 18일 집단면담 양교사)

그런데 내가 유아반 유치반 경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보고 조절해 줄 수 있었는데 내가 만약 초임이었다면 물어버렸을 꺼야.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영아반은 아이를 낳아본 교사 그리고 경력이 많은 교사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또한 영아반의 부모님들 또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 줘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럴 땐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 2월 22일 집단면담 박교사)

경력이 있는 교사나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영아의 눈빛, 몸짓이 무엇을 원하는지 교사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는지 알고 있으므로 영아에게 반응해 줄 수 있지만 초임교사들은 영아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반응해 줘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아에게 적절한 정서조절을 해주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경력교사들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로 풀어감으로써 영아가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초임교사의 경우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에게 조언을 해 주기 어려워 영아들을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영아반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정서조절 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및 논의

1)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교사들은 부정적 정서는 자기표현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정서표현이 잦은 영아에 대하여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하여 교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영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영아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교사에게 알리는 신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아에게 있어서 정서는 기쁘거나 슬프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내는 도구적 기능(Parkinson, 1995)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기 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해주고 조절해주기 보다는 영아와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통해 애착이 형성될 때까지 수용해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영아와의 애정적,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아확립’ 및 ‘자율성 발휘’라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정서적 표현이므로 영아의 발달적·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필요하다는 곽승주(2008)의 연구 결과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영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자신의 존재를 교사에게 알리는 신호라고 이해해야 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애착이 형성될 때까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이해해주고 기다려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영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해 주기위해 노력하지만 부정적 정서가 반복이 될 때 교사들은 색안경을 끼고 영아들을 바라보거나 ‘원래 그런 아이’로 낙인을 찍어 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만들며 더 강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교사들이 비수용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아는 매우 어린 나이에 부정적 정서표현이 호의적이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한다는 김명희(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상황에 맞게 조절해줌으로써 영아가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기 보다는 가치 있게 생각하며 긍정적인 조절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조절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의 원인으로는 자료다툼, 욕구불만, 놀잇감 다툼,

신체 및 언어공격, 놀이거부, 행동저지 등이 있는데(양옥승, 나은숙, 2004) 교사들은 이 외에도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영아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교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어린 연령일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이 더 많이 표출된다는 것을 담론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부족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는 각 발달 영역에서 아직 미성숙하므로 영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반응이 요구된다는 Honig(1989)의 연구와 같이 영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부정적인 정서표출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가 제공되어져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부정적 정서표현의 빈도와 질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로 영아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양육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곽금주 외, 2005)와 양육자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양연숙(2000)의 연구결과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모들의 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영아에게 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델링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부모들은 영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과제들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혼자 했다는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는 부모가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나 행동을 모방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할 때 사용하는데 이러한 모방행동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들은 부정적 정서표현이나 조절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영아에게 모범이 되어야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면담을 통해 영아가 자신을 향한 부모의 기대나 반응에 부흥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 보다는 그것을 억제하고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더 강한 부정적 정서(자해)를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또한 영아가 속해있는 환경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므로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영아가 속해있는 환경에 대해 교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교사들은 학급당 영아수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았는데 즉 두 반이 한 교실에 있는 것보다 한 반이 한 교실에 있을 때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낮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영아수가 5명 일 때 교사의 눈에 영아가 다 들어오고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의 원인에 대해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으므로 또래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감소하는 반면 학급당 영아수가 10명 일 때 2명의 교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10명의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놓쳐버리거나 민감하게 반응해 주기 어렵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2명 이상의 정담임 존재가 영유아에게 개개인들에 대한 더욱 민감하고 적극적인 교사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권현서(200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투 담임제가 어떤 상황에서 영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상황에서 영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첫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교사들은 단호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아가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인 슬픔과 분노, 화, 수치심, 울음 등에 대해서 교사들은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며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조절되도록 돕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정적인 정서(때리기, 물기, 던지기, 자해하기 등)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을 통해 영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거나 단호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정적인 정서 표출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화나 공격, 때쓰기 등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경우 교사들은 명령하기, 지시하기, 무시하기 등의 비수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김명희(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반복해서 표출할 때 교사들은 때론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아가 계속 울음으로 표현할 경우 반응해 주기보다는 울음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될 때까지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어느 정도 감소되면 상호작용해줌으로써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조절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무시하는 반응을 사용하기도하나 제 3자가 보기에다 수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교사들은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이유가 욕구불만에서 표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는지를 교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은숙, 황혜

경(2004)의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교사가 영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절한 반응을 못할 경우 오히려 영아의 부정적 정서를 발현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의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아의 기질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김지선(2009)의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빈번한 갈등이 생기며, 신체공격 및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등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의 원인이 무엇인지, 유아들의 성향이나 기질이 어떠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반응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4)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조절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영아는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배우게 되므로 영아주변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양연숙(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안정 애착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상호작용의 질이 낮을수록 불안회피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보다 긍정적인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개방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크며 반대로 질적 수준이 낮은 타인양육을 경험한 영아가 과장된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주 양육자인 부모와 대리양육자인 교사들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첫째,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이나 유아교육과 관련된 학과 등 유아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영아의 정서교육이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과목이 더 많

이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직무교육에서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영아의 발달과 정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둘째, 영아의 발달이나 부정적 정서의 이해에 대한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부정적 정서를 표출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는지를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한다.

셋째,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해주기 위해서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민감해야 된다. 이는 영아의 정서조절 발달은 민감한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립된다는 Tronick (1989)의 연구결과와 맥을 나란히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영아의 몸짓이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사가 갖고 있는 영아의 정보를 잘 연관시켜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긍정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은 영아들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는 교사가 영아반을 맡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나 아이들을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영아의 눈빛, 몸짓이 무엇을 원하는지 교사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는지 알고 있으므로 영아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은숙, 황혜경(2004)의 연구에서도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장에서 모든 영아반 교사를 경력자가 담당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해 영아반 교사들을 위한 자율장학활동, 동료장학, 멘토십 등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영아들과 그들의 부모를 돕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신장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2. 결론 및 제언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교사들은 영아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표현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표현을 반복적으로 표출하는 영아들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아이’로 낙인을 찍어 놓고 수용적인 반응보다는 비수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완화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교사로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교사들은 그 원인 이외에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어린 연령의 영아들일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이 더 많이 표출되며,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더 강하게 표출되거나 조절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표출이나 조절과정을 모방해서 부정적 정서로 표출하기도 하며, 학급당 영아 수에 따라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할 경우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며,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감추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들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부분 수용적으로 반응해주고 긍정적으로 정서가 조절될 수 있도록 돕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응하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사용함으로

써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줄어들고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영아의 작은 몸짓,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부정적 정서표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게 정서조절 될 수 있도록 반응해줘야 한다.

넷째,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들과 초임교사의 경우 영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할 때 어떻게 반응해주고 어떻게 조절해줘야 할지 모르고 있어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의 발달이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경력교사가 영아반을 맡는 것이 영아와 그들의 부모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 졌으므로 레포가 형성된 연구 참여자를 10명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위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서 분석해 본다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초임교사부터 경력교사까지 다양한 배경의 교사가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예비연구에서 초임교사들과 레포가

잘 형성되지 않은 교사들은 핵심주제면담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깊이 있는 면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경력이 4년 이상 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높은 경력의 교사들로부터 영아의 부정적 정서를 진정시키거나 완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초임교사들과 경력 3년 미만의 교사들은 현장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긍정적으로 조절해 주기 위해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영아의 발달이나 정서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교육이 영아의 정서를 조절해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후속연구를 통해 영아의 부정적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희연 (199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아동학회지**, 26(6), 173-187
- 곽노의, 김경철, 김유미, 박대근(2007). **영유아 발달**. 서울: 양서원.
- 곽승주 (2008).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현서(2009). 정담임-정담임 팀티칭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갈등과 불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4). **정서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경희 (1999).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명희 (2000). 영아의 정서표현에 따른 교사의 언어적 반응.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진 (2005). 정서문제 유아에 대한 집단놀이치료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유미 (2005). **뇌를 통해 본 아동의 정서**. 서울: 학지사.
- 김윤옥 (1996).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과 설계**. 서울: 문음사.
- 김지선 (2009). 가족 특성, 영아의 기질, 보육 경험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 (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 김언아, 홍희난 (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나은숙, 황혜경 (2004). 1·2·3세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3권 제1호.
- 남문순 (2003). 정서변화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이해 능력 발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1985). 어머니의 수유방식 및 자녀접촉 정도가 대물애착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마혜진 (2005). 영아의 또래간 갈등에 대한 교사의 개입전략.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박성연, 도현심 (2001). **아동발달**. 서울: 동문사
- 박성희 (2003). 그림책 관련활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유미 (2008). 영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과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 (1990). 아동의 정서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제4권 제2호
- 서지영 (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선 (2004). 좌절 상황에서의 걸음마기 유아의 정서조절: 어머니 상호작용의 중재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정 (2000).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은진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옥승, 나은숙 (2004). 영,유아가 화를 내는 원인과 조절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181-199
- 양연숙 (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

- 조절.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2008). 만2세아의 대물다툼상황에서 갈등해결양상과 교사개입방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은 (2004). 미술치료가 중복장애를 가진 유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 · 정서적 행동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 이정희, 김온기, 이미란, 조성연, 이정림, 유영미, 이재선, 신혜원, 나종혜, 김수연, 정지나 (2009). **영유아발달**. 서울: 학지사
- 이지선, 정옥분 (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훈구, 한종철, 정한섭, 오경자, 한광희, 황상민, 김민식(2003).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법문사.
- 임승권 (1992). **정신위생**. 서울: 교문사
- 임창재 (1997). **정신위생심리**. 서울: 형성출판사.
- 장영희 (2000). **영아 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정봉교, 현서용, 윤병수 역 (2003). **동기와 정서의 이해**. John Narshall Reeve 저, 박학사.
- 정윤희 (200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복희(2006).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나종혜 (2005).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신정
- 한관희 (1993).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근민 (1997). 영아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에 따른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k, L. E. (2002). *Infants and Children: Prenatal through middle childhood*. MA: Allyn & Bacon.
- Calkins, S. D. (1994).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al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Campos, B.& Barrett (1989).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Fox, N.(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 Cohn, J. F,& Tronick, E. Z. (1983). Three-month-old infants reaction to simulated maternal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4, 185-193.
- Ekman, P., & Davidson, R. J.(1994). *The nature of emotion: Fundamental question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nglish, H., & English, A. C.(1961). *A student's dictionary of psychological terms*. New York: Longmans Green.
- Gordon, T. (197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Peter H. Wyden.
- Gross, J. J., Richards. J. M., John, O. P.(2006) Emotion Regulation in everyday life. In D. K. Snyder, J. A. Simpson, & J. N. Hughes(Eds.) *Emotion regul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 (pp. 13-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nig(1989). Quality infant/toddler caregiving: Are there magic recipes?
Young children. 44(4). 4-10
- Hurlock, E.B.(1959). *Developmental psychology*.New York: McGraw-Hill.
- Izard, C.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 Plenum Press.
- James, W.(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Kessen, W., & Mandler, G.(1961). Anxiety, pain, and inhibition of distress. *Psychological Review, 68*, 396-404.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Kopp, C. B.(1992). Emotional distress and control in young childre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5*, 41-56.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M & Michalson, L. (1983).*Children's emotions and moods: Developmental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Plenum
- Snow, C. W. (1998). *Infant Development*, NJ: Prentice Hall.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 1980년 출간)
- Termin, N. T., & Izard. C. E.(1988). Infants' response to their mothers' expressions of joy and sad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23-229
- Thompson, R. A. (1991).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 269-307

- Thompson, R. A. (1991).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10), 269-307.
- Th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Fox(Ed.), Emotional regulation :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Serial No. 240), 25-52
- Watson, L. D., Watson, M. A., & Wilson, L. C. (1999)

ABSTRACT

Analysis of Teachers' Discourses on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Oh, Jeong-sun

Major in Chil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teachers' opinions on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through interviewing teachers experienced in an infant class and to analyze teachers' discourses on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In addition, through the results of interviews on the process that infants' emotion is stabilized by the teacher's response,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beginner teachers of an infant class to understand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nd help the infants control their emotion in a positive way.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How do teachers perceive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 2) What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 3) How is teachers' response to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 4) How do teachers think about the method of controlling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s this is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teachers' frank opinions on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we sampled 10 teachers who had experienced an infant class where rapport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s for around 5 months from October 12, 2009 to February 27, 2010, and all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participants' prior consent. In data analysis, recorded data and field notes were itemized and classified. In addition, for the reliability of data analysis, advice was sought from a teacher who majo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graduated from a graduate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regarded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s a phenomenon appearing naturally in infants' development process and a signal telling their existence in a way of self-expression. In addition,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induced teachers to have negative prejudices such as 'naughty child by nature' and 'branded child' and, as a result, the teachers felt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Second, teachers perceived that there are factors influencing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That is, they said that the frequency and quality of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arents' parenting attitude. In addition, because infants lack communication skills, younger infants who have difficulty in controlling negative emotions through language express

negative emotions more frequently. Furthermore, teachers' discourses showed that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increase or decrease depending on the number of infants per class.

Third, teachers' responses to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were as follows. They showed a stern response to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that hurt others, and ignored repeate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but sometimes they waited until infants' emotion calmed down and then soothed their emotion so that the infants might experience positive emotions.

Fourth, teachers thought that, in order to soothe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into positive ones, teacher education and parent education are necessary on infants' emotional development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What is more, infant class teachers suggested the necessity of sufficient information on individual infants for sensitive response to their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nother finding was that it may be desirable to put infant classes in the hand of experienced teachers who can advise parents on infant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nd how to control them.